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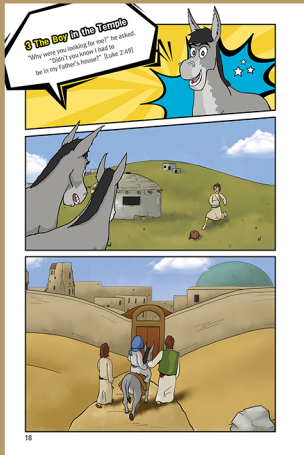
3rd Story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The Boy in the Temple.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 3rd Story -



데이브

하이~~ 저 알아보시겠어요? 잘 좀 기억해봐요~~ 제 이름은 데이브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태워 베들레헴을 다녀왔던 바로 그 당나귀랍니다. 아 정말 힘든 여행이었죠, 그런데 뭐 어찌겠어요. 그게 제 일인데. 그날로부터 저는 요셉과 마리아네 집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여행할 때 가방을 실어주고는 했죠. 때로는 예수님이 내 위에 타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뛰어 다니셨죠. 뭐 이제 열 두 살이시니까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나시겠어요? 사실 그러고보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떠오르네요. 아시겠지만 일년에 세 번씩,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내러 간답니다. 요셉 마리아 그리고 어린이 예수님은 명절 지키는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했고, 함께 오랜만에 만나 얘기 나누는 일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명절 때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답니다.

사람 1

이야... 요셉 자네 여기 있었구만!

사람들

요셉~!! 마리아~!!

사람 2

이보게 여기 아들도 같이 왔군, 많이 컸네~!

데이브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짐을 싸서 제 등에 싣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요셉

다들 준비되었나요?

사람들

네네... 그럼요.

데이브

우린 하루 종일 길을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해서 짐을 풀고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텐트를 치려고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저도 그제서야 알아차렸지 뭐예요. 저도 함께 걸어왔던 다른 동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하루 종일 보지 못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셉

예수를 보셨나요?

여행자

아니, 오늘 온종일 못 봤는데...

마리아

우리 아들 보셨어요?

여행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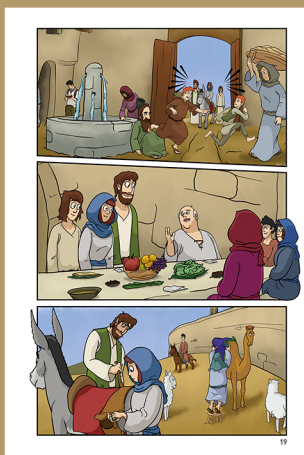
거 이름이 뭐유? 야고보요?

마리아

아니요. 예수요 예수.

여행자2

음... 아니 못 봤수다.





- 마리아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 요셉과 마리아 예수~~ 예수~~ 어디 있는 거니?
- 데이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나요?
- 카메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요?
- 데이브 엄... 작아요. 엄마 같은 예쁜 미소가 있고, 아빠 같은 갈색 머리칼이고...
- 카메론 음... 아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 데이브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 사이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어디에서 찾아야할지도 막막했고,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구요.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덩달아 저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꼬박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마지막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어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묻고 답하고 그러고 있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어린 소년이 저렇게 많이 그리고 정확히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 마리아 예수! 어머니 세상에! 아빠랑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니? 어디 있겠다고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겠니?
- 요셉 뭘 하고 있었던 게니? 왜 말을 안 해줬니?
- 예수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어요?
- 요셉과 마리아 어?
- 데이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요셉의 집은 나사렛이었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 마리아 집에 갈 시간이야.
- 예수 네 알겠어요, 어머니.
- 데이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세 사람은 모두 나사렛으로 갔지요. 물론 저도 같이 갔지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전에도 그랬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착한 어린이였답니다.